

사상체질별 완실무병 지표들의 임상적 유효성 분석 : Short Form-36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

손은혜·곽창규·이의주

강남경희한방병원 사상체질과

Abstract

Assessment of the Clinical Efficacy of the Health Index in the Sasang Constitutions : Short Form-36 Based Study

Sohn Eun-Hae, Kwak Chang-Kyu, Lee Eui-Ju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angnam Kyunghee Oriental Medicine Hospital

1. Objectives

Theoretically Healthy Condition of four constitution is based on intact state of four fundamental factors - digestion, urination, perspiration, defecation. Each one of these four factors is specifically related to its respective constitution. We made SHI(Sasangin Health Index) 10 items from four factors, and examined clinical efficacy of the four factors as index of health status in four constitution.

2. Methods and Procedures

We offered QSCC II, SHI and SF-36 questionnaires to adults who had a periodic medical examination. 233 adults were classified to one of four constitution. We compared means of 8 scale scores of SF-36, and compute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8 scale scores of SF-36 and 10 item scores of SHI in four constitution.

3. Results

In Soyangin, stool volume and frequency are weakly correlated with health status($P<0.05$). In Soeumin, appetite is weakly correlated with health status($P<0.05$). In Taeumin,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perspiration and health status.

4. Conclusions

2 factors - digestion, defecation - had clinical efficacy as index of health status.

Key Words: Sasangin Health Index, QSCC II, SF-36

I. 서론

완실무병(完實無病)이란 사상인(四象人)의 保命之主가 충분히 갖추어진 병이 없는 건강 상태를 의미한다. 완실무병의 지표는 체질에 따라 상이하 여, 태양인(太陽人)은 小便旺多, 소양인(少陽人)은

大便善通, 태음인(太陰人)은 汗液通暢, 소음인(少陰人)은 飲食善化가 각각 완실무병 상태의 지표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¹. 따라서 완실무병의 지표들은 사상인의 건강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체질변별의 지표로서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완실무병 지표들과 직접 관련된 생리 현상들 - 배뇨, 배변, 발한 및 소화 - 은 사상인의 질병상태에 있어서도 체질병증을 진단하고 질병의 예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

접수일 2004년 10월 28일; 승인일 2004년 12월 4일

교신저자 : 이의주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994-5 강남경희한방병원 체질의학센터

Tel : +82-2-3457-9090, Fax : +82-2-3457-9100

E-mail : sasangin@khu.ac.kr

준에 이미 대변², 소변³, 땀^{4,5}을 중심으로 체질병증을 분석하는 문헌 고찰 연구가 행해진 바 있다. 최근에는 최 등⁶에 의하여 체질별 대변의 평소 특징 및 병리적 특징을 분석하는 설문조사 연구가 행해진 바 있으며, 백 등^{7,8}에 의하여 체질별 소화상태의 양상을 분석한 설문조사 연구 및 체질별 식욕과 식사습관의 특징을 분석한 설문조사 연구가 행해진 바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배뇨, 배변, 발한, 소화를 주로 체질병증 분석 및 체질진단과 관련하여 고찰해 왔을 뿐, 이들이 가지는 완실무병 지표로서의 측면 특히 사상인 건강수준의 평가기준으로서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이의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하려 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저자는 사상인 건강수준을 건강수준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건강수준과 완실무병 지표들과의 관련 정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완실무병 지표가 실제 사상인 건강수준 판별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4년 10월 12일부터 2004년 10월 27일까지 경희대학교 강남경희한방병원에서 정기 근로자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 및 그 가족들 중에서 QSCC II를 작성하여 체질이 확인된 23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사상체질 진단도구

QSCC II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체질을 분류하였다. 설문지 작성시 대상자들이 간호사에게 관련 의문사항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의 누락 정도를 줄이고 자료의 타당도를 제고시켰다.

3. 완실무병 지표 측정도구 (Sasangin Health Index: SHI)

『東醫壽世保元辛丑本』의 원문을 기초로 하여,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원문에 묘사된 완실무병 조건들을 가능한 한 세분하여 식욕소화에 관

한 2문항, 배뇨현상과 관련된 3문항, 발한과 관련된 2문항, 배변현상과 관련된 3문항을 완실무병의 지표로 삼았다. 각 지표의 수준 측정에는 Likert five-point scale을 사용하였다.

식욕소화에 관한 2문항은 소음인의 완실무병 조건인 飮食善化에 관한 것이다. 배뇨현상과 관련된 3문항은 태양인의 완실무병 조건인 小便旺多에 관한 것으로, 이를 배뇨량, 소변성상, 배뇨빈도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세분한 것이다. 발한과 관련된 2문항은 태음인의 완실무병 조건인 汗液通暢에 관한 것으로, 이를 정상적으로 발한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발한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발한 - 즉 식은땀 - 으로 구분한 것이다. 배변현상과 관련된 3문항은 소양인의 완실무병 조건인 大便善通에 관한 것으로, 배뇨현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배변량, 대변성상, 배변빈도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세분하였다(Table 1).

건강 검진을 위해 본 병원 검진센터에 내원한 대상자들에게 현장에서 완실무병 지표 측정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였다.

4. 건강수준 측정도구

건강수준 측정도구로는 한국어판 SF-36(SF-36® Health Survey (SF-36 Standard Korean (Korea) Version 1.0))을 이용하였다. 건강 검진을 위해 본 병원 검진센터에 내원한 대상자들에게 현장에서 SF-36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보고식으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였다.

SF-36은 서구에서 개발한 일반적인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건강과 일치하는 개념으로서의 삶의 질을 측정한다.

SF-36은 기능 수준(functional status), 안녕 수준(well-being), 전반적 건강평가(overall evaluation of health) 등 3개의 영역을 측정하며,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다시 신체적 기능(Physical Functioning: PF), 신체적 역할 제한(Role limitation due to Physical problem: RP), 통증(Bodily Pain: BP), 일반 건강(General Health: GH), 활력

Table 1. Information about Sasangin Health Index (SHI)

Concepts	Item content	Meaning of scores	
		Low	High
Digestion	Appetite	Loss of appetite Anorexia	Increase of appetite Strong appetite
	Digestion	Impaired digestion Dyspepsia	Strong digestion Eupepsia
Urination	Urine Volume	Small urine volume	Large urine volume
	Urine Consistency	Cloudy, colored urine	Clear, colorless urine
	Urine Frequency	Decreased frequency	Increased frequency urinating more than usual
Perspiration	With Exertion	Decreased perspiration	Increased perspiration
	Without Exertion	Sweatless	Excessive sweating
Defecation	Stool Consistency	Lumpy or hard stools Constipation	Loose or liquid stools Diarrhea
	Stool Volume	Small stool volume	Large stool volume
	Stool Frequency	Abnormal frequency (Diarrhea/Constipation)	Normal frequency

(Vitality: VT),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ing: SF), 감정적 역할 제한(Role limitation due to Emotional problem: RE) 및 정신 건강(Mental Health: MH)의 8개 범주로 나누어진다.

SF-36 설문지로부터 얻어진 원점수와 8개 범주에 대한 점수화 및 결과의 해석은 매뉴얼에서 제시한 절차와 해석방법을 따라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각 범주는 최저 0에서 최고 100점에 이르는 값을 갖게 되는데, 높은 점수가 건강이 좋은 상태를 반영한다^{9,10}.

5. 통계적 분석

모든 분석에는 Windows®용 SPSS® version 11.5를 이용하였다. 체질간의 비교에는 분산분석법(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이용하였다. 각 체질별로 완실무병 조건의 충족수준과 건강수준을 비교하는 데는 상관분석법(Spearman correlation)을 이용하였고, 완실무병 지표 수준과 SF-36의 각 영역별 점수의 상관 정도를 Spearman's rho로 표현하였다. p값이 0.05 또는 0.01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¹¹.

III. 결과

1.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의 수는 총 233명으로 성별로는 남자가

171명(73.4%), 여자가 62명(26.6%)이었다. 평균 연령은 39.4세(표준편차 7.1)로 최저 연령은 23세, 최고 연령은 66세였으며 30-39세가 109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40-49세가 88명(37.8%), 20-29세가 18명(7.7%), 50-59세가 15명(6.4%), 60-69세가 3명(1.3%)이었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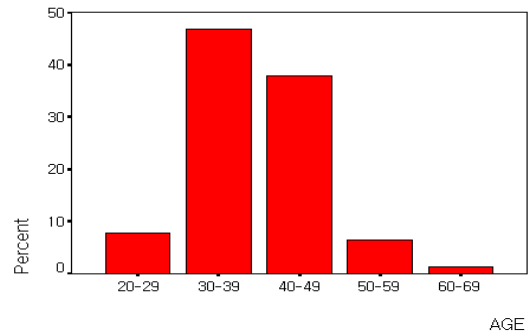


Figure 1. Distribution of Subjects by Age Group

QSCC II 결과상 233명의 연구대상 중 소양인이 86명(36.9%), 태음인이 84명(36.1%), 소음인이 63명(27.0%)이었고 태양인은 없었다. 각 체질별 연령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체질별 성별 분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소양인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36.0%로 태음인의 21.4%나 소음인의 20.6%보다 높게 나타났다 (P<0.05).

체질별 SF-36 점수의 평균 수치에는 통계적으로

Table 2. The Results of SF-36 in Three Group: Soyangin, Taeumin, Soeumin

	Soyangin(n=86)			Taeumin(n=84)			Soeumin(n=63)		
	Mean	SD	Range	Mean	SD	Range	Mean	SD	Range
PF	87.39	14.50	75.00	86.69	13.66	66.67	88.64	14.30	80.00
RP	88.39	24.68	100.00	89.16	23.49	100.00	87.77	25.59	100.00
BP	82.62	20.05	78.00	79.69	18.85	69.00	79.95	16.51	58.00
GH	61.59	15.23	85.00	59.68	14.89	72.00	56.74	15.77	80.00
VT	57.50	19.46	95.00	60.22	17.30	75.00	55.32	20.36	90.00
SF	86.47	17.38	75.00	87.20	18.51	87.50	90.87	12.54	50.00
RE	83.53	35.07	100.00	86.90	28.82	100.00	85.98	28.11	100.00
MH	72.61	14.20	64.00	73.19	14.51	76.00	73.24	16.92	68.00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2. SHI 수치와 SF-36 수치의 비교

사상인 건강수준과 완실무병 지표들 간의 관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각 체질에 대하여 SF-36 8개 범주의 수치와 SHI 10개 항목 수치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소양인에서(n=86), 식욕 및 소화 수준과 건강수준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뇨현상과 관련해서는 배뇨빈도가 통증 범주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5). 일반적인 형태의 발한(즉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발한)은 일반 건강(P<0.01), 사회적 기능(P<0.05) 및 정신 건강

(P<0.05) 범주들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식은땀(즉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발한)은 통증(P<0.05), 일반 건강(P<0.05), 사회적 기능(P<0.05) 및 정신 건강 범주(P<0.01)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배변현상과 관련해서는 몇몇 범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배변량이 신체적 기능 범주와 활력 범주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배변빈도 역시 활력 범주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5)(Table 3).

태음인에서(n=84), 식욕 및 소화 수준과 건강수준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F-36 Scales and SHI Scores (N=86)^{a,b}

	PF	RP	BP	GH	VT	SF	RE	MH
Appetite	.015	-.001	-.031	-.021	.165	.014	-.050	.037
Digestion	-.025	.111	.162	.067	.135	.043	.085	.176
Urine Volume	.111	.011	.027	.124	-.001	.149	.051	.011
Urine Consistency	.154	.158	.056	.087	.195	.078	.034	.074
Urine Frequency	.063	.085	-.245*	-.115	-.044	-.111	.139	-.066
Perspiration with exertion	-.069	.113	-.146	-.301**	-.149	-.240*	-.017	-.262*
Perspiration without exertion	-.155	-.058	-.227*	-.262*	-.165	-.225*	-.151	-.353**
Stool Consistency	.200	.008	.040	.067	.146	.031	-.019	.126
Stool Volume	.237*	-.033	.121	.097	.249*	.141	.037	.095
Stool Frequency	-.056	-.143	.053	.099	.229*	.065	-.193	.016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a. QSCC2=Soyangin

b. Spearman's rho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SF-36 Scales and SHI Scores (N=84)^{a,b}

	PF	RP	BP	GH	VT	SF	RE	MH
Appetite	.040	-.172	-.013	-.048	-.138	-.014	-.174	-.007
Digestion	.063	.107	.136	.091	.055	.151	.044	.197
Urine Volume	-.020	-.170	.193	.073	.145	.024	-.118	.101
Urine Consistency	-.117	.049	.094	-.013	-.089	-.061	-.067	-.078
Urine Frequency	-.240*	-.020	-.126	-.332**	-.125	-.264*	-.222*	-.244*
Perspiration with exertion	.077	-.330**	-.020	.019	.011	-.013	-.234*	.019
Perspiration without exertion	.029	-.105	-.171	-.139	-.145	-.173	-.048	-.266*
Stool Consistency	-.071	-.124	-.133	.009	.035	-.162	-.065	-.016
Stool Volume	-.103	-.191	-.035	-.050	.042	-.110	-.128	.068
Stool Frequency	-.140	.042	-.088	-.033	.012	-.173	-.054	-.187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a. QSCC2=Taeumin

b. Spearman's rho

나지 않았다. 배뇨현상과 관련해서는 배뇨빈도가 신체적 기능, 사회적 기능, 감정적 역할 제한, 정신 건강 범주들(P<0.05) 및 일반 건강(P<0.01) 범주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형태의 발한은 신체적 역할 제한(P<0.01) 및 감정적 역할 제한(P<0.05) 범주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식은땀은 정신 건강 범주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5). 배변 현상과 건강수준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소음인에서(n=63), 식욕 수준은 신체적 기능 및 일반 건강 범주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P<0.05), 소화 수준

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뇨현상과 관련해서는 배뇨량과 일반 건강 범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P<0.05), 소변성상과 활력 범주 및 정신 건강 범주와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05). 발한에 있어서는 식은땀이 일반 건강과 정신 건강 범주(P<0.05), 그리고 사회적 기능 범주(P<0.01)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발한은 건강 수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배변 현상과 건강수준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SF-36 Scales and SHI Scores (N=63)^{a,b}

	PF	RP	BP	GH	VT	SF	RE	MH
Appetite	.253*	.041	-.117	.255*	.221	.002	.031	.180
Digestion	-.141	-.047	.041	.157	.080	.202	.089	.158
Urine Volume	.025	.010	-.015	.255*	.183	-.057	-.030	.163
Urine Consistency	-.034	-.163	-.019	.130	.301*	.065	-.154	.308*
Urine Frequency	.051	-.178	-.239	-.250	-.182	-.196	-.030	-.156
Perspiration with exertion	.247	-.122	.052	-.093	-.053	-.190	-.183	-.216
Perspiration without exertion	.073	-.069	-.149	-.304*	-.167	-.333**	.034	-.290*
Stool Consistency	.242	-.004	-.188	.136	.079	.051	.020	.069
Stool Volume	.153	-.182	.000	.095	.030	-.012	-.102	.123
Stool Frequency	.081	-.100	-.200	-.051	.082	-.134	-.084	.014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a. QSCC2=Soeumin

b. Spearman's rho

IV. 고찰

사상의학에서의 건강 상태는 정신적 안녕이나 인격의 발달 정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도 분리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¹. 이러한 근거에서 사상인의 건강 개념은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에 대한 정의와 일치하는 점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관련 삶의 질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을 측정하는 핵심 도구들 중 하나인 SF-36을 이용하여 사상인의 건강수준을 측정하였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많은 도구들 중에서도 SF-36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사용 빈도가 높으며 검증이 잘 된 도구에 속한다.

체질별 SF-36 점수의 평균 수치를 분산분석법 (analysis of variance, ANOVA)으로 분석한 결과, 각 체질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이는 사상인의 건강 수준에 체질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체질에 따라 臟理가 다르다고 해도 각각의 체질은 모두 聖人 -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측면에서 건강한 사람 - 이 될 수 있는 동등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의학의 관점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체질별로 SF-36 8개 범주의 수치와 SHI 10개 항목 수치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여 건강수준과 완실무병 지표들 간의 관련 정도를 분석한 결과, 소음인과 소양인 군에서는 해당 완실무병 지표와 건강수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태음인 군에서 얻어진 결과는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SF-36의 항목별로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소양인에서 배변량의 증가는 신체적 건강의 평가 척도가 되는 일상 신체 활동 능력 및 활력 범주에 대하여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완실무병 지표로서의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배변빈도의 적정성 역시 활력 범주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완실무병 지표로서의 유의성을 보였다. 활력 범주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원기왕성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 한편 배뇨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주로 신체적 통증 및 이에 따른 생활의 지장과 관련이 있었으며, 활동과 관련된 발한의 증가는 일반 건강, 사회적 기능, 정신 건강 등 심신 양면 혹은

정신적 건강에 민감한 척도들의 저하와 관련이 있었다. 식은땀의 증가는 활동과 관련된 발한의 증가와 유사하게 심신 양면 혹은 정신적 건강에 민감한 척도들의 저하와 관련이 있었으며, 또한 배뇨빈도의 증가와 유사하게 신체적 통증 및 이에 따른 생활의 지장과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발한을 소양인의 정신적 건강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로, 배뇨빈도나 식은땀을 소양인의 통증 관련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태음인 분석 결과, 활동과 관련된 발한의 증가는 신체적 혹은 감정적 문제에 기인한 생활의 지장과 관련이 있었으며 식은땀의 증가는 정신 건강 척도의 저하와 관련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달리 태음인이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좋은 건강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오히려 태음인이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체중의 증가, 사회적 기술의 결핍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으리라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한편 태음인의 경우 잦은 배뇨빈도가 건강 수준 척도들의 전반적인 저하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태음인 吸聚之氣의 이상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배뇨빈도를 태음인의 건강수준 지표로 활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소음인에서 식욕 수준은 신체적 기능 및 일반 건강 범주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소화 수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서, 소화 수준보다 식욕 수준이 소음인 완실무병의 지표로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한편 1회당 배뇨량이 많은 것과 일반 건강 범주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소변성상과 활력 범주 및 정신 건강 범주와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양이 많고 깨끗한 소변이 소음인의 좋은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발한에 있어서는 식은땀이 일반 건강과 정신 건강 및 사회적 기능 범주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들은 주로 정신적 건강 상태와 관련이 있는 범주들로서 소음인이 식은땀을 흘리는 현상은 주로 신체적인 건강 상태보다는 심리적

압박감이나 사회생활의 문제와 연관하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 반면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발한은 건강수준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아서, 소음인이 활동과 관련된 땀을 흘리는 것은 나쁜 건강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V. 결 론

완실무병 지표들이 사상인 건강수준 평가기준으로서의 임상적 유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소음인과 소양인의 경우 완실무병 지표가 실제 건강수준의 평가기준으로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음인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는데 향후 태음인의 발한과 건강 수준에 대한 보다 상세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태양인의 완실무병 지표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없었으므로 분석이 행해지지 못했다. 다만 배뇨현상이 다른 체질들의 건강수준에 대하여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기회는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건강수준 측정도구로 사용한 SF-36은 적은 수의 설문항목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연구에서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를 측정¹²하거나 특정 질병이 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¹³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조사 도구로서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 수십여 개 국가 언어로 번역되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한 한국어판 SF-36(SF-36 Standard Korean (Korea) Version 1.0)의 경우, SF-36의 공식 배급처(www.qualitymetric.com)에서 배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판 SF-36의 타당성 검증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바탕을 둔 도구 검증 단계를 밟은 논문이 확인되지 않았다¹⁴. SF-36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고 등¹⁵의 논문 및 남 등¹⁶의 논문이 있기는 하지만, 전자의 경우 도구의 번역 단계에서 적절한 언어학적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기본적인 번역의 오류도 발견되어 타당성 검증 논문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고 등¹⁵이 한역한 설문지에 임의로 SF-36의 제2판인 SF-36v2의 내용을 반영시킴으로써

고 등¹⁵의 오류를 되풀이할 뿐만 아니라 원문의 내용과 척도에 대하여 적절한 타당성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오류까지 저지르고 있어 역시 타당성 검증 논문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라도 SF-36 타당성 검증 과정에 대하여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F-36은 전반적으로 사상인의 건강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이번 연구 뿐 아니라 한의학 임상 연구 전반에 걸쳐서 생존율, 생체 반응 등의 전통적인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환자의 주관적 지표의 측정도구로서 SF-36 외의 많은 일반적 혹은 질병-특이적 삶의 질 측정도구들을 활용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VI. 參 考 文 獻

1.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2판. 집문당, 서울, 2004 : 55, 156.
2. 李廷燦, 金達來. 大便을 中心으로 한 四象 體質 病證에 對한 考察. 사상학회지. 1992;4: 171-177.
3. 金善豪, 金達來. 小便辨證의 四象醫學의 觀點과 傷寒論의 觀點에 對한 比較 考察. 사상학회지. 1992;4:179-186.
4. 河萬秀. 汗을 中心으로 한 體質病證에 對한 考察. 사상학회지. 1993;5:125-131.
5. 서 옹, 송정모. 發汗에 對한 四象醫學의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56-66.
6. 최재영, 박성식. 사상체질에 따른 대변의 특징에 대한 임상적 검토.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 14(2):58-68.
7. 백태호, 최정락, 박성식. 소화에 관한 체질별 상관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4;16(1):112-119.
8. 백태호, 박성식. 식욕, 식사습관에 대한 체질별 상관성 연구. 대한한학회지. 2004;25(2):77-86.
9. Ware JE, Snow KK, Kosinski M. SF-36® Health Survey: Manual and Interpretation Guide. Lincoln, RI: QualityMetric Incorporated, 1993, 2000.
10. Ware JE and Kosinski M. SF-36® Physical &

Mental Health Summary Scales: A Manual for users of Version 1, second edition, Lincoln, RI: QualityMetric Incorporated, 2001.

11. 안재익, 유근영. 의학보건학 통계분석. 4쇄. (주)데이터솔루션, 서울, 2003.

12. 김재용, 정현대, 이상형, 김동규, 정희원. 청신경초종 환자에서 치료 후 삶의 질: Short Form-36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 J Korean Neurosurg Soc. 2003;33:535-539.

13. 박창근, 박수영, 김은수, 박진형, 현동우, 윤영미, 조창민, 탁원영, 권영오, 김성국, 최용환, 박신구. 만성 바이러스성 간질환 환자의 삶의 질 평

가 및 관련인자 분석. 대한간학회지. 2003;9(3): 212-221.

14. 박혜자, 김세현, 배상철. 한국인 건강 관련 삶의 질 연구 현황. 대한류마티스학회지. 2002;9(4): S1-S17.

15. 고상백, 장세진, 강명근, 차봉석, 박종구. 직장인들의 건강수준 평가를 위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예방의학회지. 1997;30:251-266.

16. 남봉현, 이승욱. 건강수준 측정도구 SF-36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연구. 韓國保健統計學會誌. 2003;28(2):3-24.

<별첨>

Sasangin Health Index (SHI) 측정용 설문지

성명 _____ 연령 (만나이) _____ 성별 (남 / 여)

이 설문은 스스로 본인의 건강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의사들이 환자의 평소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에 답할 때는 본인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숫자 한 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십시오.
 답을 고르기가 힘든 경우, 일단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답을 선택하고 문제 왼쪽에 따로 설명을 붙여 주십시오.

	확실히 그랬다	대체로 그랬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지난 한달 동안 식욕이 좋은 편이었습니까?	1	2	3	4	5
지난 한달 동안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러거나 아프거나 메스꺼리거나 기타 불편한 증상이 없이 소화 잘 되었습니까?	1	2	3	4	5
지난 한달 동안 한 번에 보는 소변의 양이 많은 편이었습니까?	1	2	3	4	5
지난 한달 동안 소변이 탁하거나 색이 짙지 않고 맑았습니까?	1	2	3	4	5
지난 한달 동안 주변 사람들에 비해 자주 소변을 보는 편이었습니까?	1	2	3	4	5
지난 한달 동안 가벼운 활동을 할 때 쉽게 땀이 나는 편이었습니까?	1	2	3	4	5
지난 한달 동안 식은땀이 나는 편이었습니까?	1	2	3	4	5
지난 한달 동안 대변의 굳기가 딱딱하지 않고 묽은 편이었습니까?	1	2	3	4	5
지난 한달 동안 한 번에 보는 대변의 양이 많은 편이었습니까?	1	2	3	4	5
지난 한달 동안 배변 횟수가 드물거나 잦거나 하지 않은 편이었습니까?	1	2	3	4	5